

## 조사경위

우리 국어교육과에서는 1976년부터 매해 여름 방학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벌써 28번째가 된다. 그 동안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에서도 마을개황, 방언, 민요, 설화, 신앙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동안 익힌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었으며,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2006년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3박 4일동안 厓月邑 鳳城里에서 이루어졌다. 조사경위는 아래와 같다.

2006년도 새늘 국어교육과 학술조사는 이미 3월 초 경에 정해졌다. 에월읍 봉성리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교수지원과에 근무하시는 현승호님이 마을 향토지 발행 과정에 있어 마을에 조사된 내용의 미약함을 얘기하며 국어교육과 학술조사를 통해 마을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현승환 교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2006년도 학술조사 장소 지 선정을 애월읍 봉성리로 정하게 되었다.

이후, 마을 환경과 숙소로 사용할 초등학교 교실과 급식소 이용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5월 17일에 어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술조사시 어도 초등학교 이용여부를 알아보았다.

그후, 6월 22일 학술부 자체내의 1차 사전 답사가 이루어졌다. 이장님을 뵈어 학술조사 관련 마을의 제보자 확보 및 마을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렸다. 예년과 달리 마을측에서부터 먼저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장님 이하 리사무소 사무장님등 여러분께서 친절하게 응해 주셨고 또한 협조를 약속하였다. 1차 사전 조사에서는 이장님을 통한 민요, 설화 등의 제보자 확보와 마을의 지리를 익히는데 주력하였다.

그 후, 7월 1일 5명의 각 반 반장들과 함께 2차 사전답사가 이루어졌다. 개황반은 5개 동으로 나뉘어진 각 동을 돌아다니며 설촌유래 파악 등을 파악하며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루는데 주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명동 강형관 할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민요반과 설화반 역시 제보자의 집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며 이후 실제 학술조사시 많은 협조를 부탁하였다. 신앙반 또한 마을의 공인 종교인 교회와 절 등을 돌아다녔고, 포제와 당의 위치 등을 파악하였다.

일주일 뒤인 7월 8일 3차 사전답사에서는 직접 노인회관 및 마을의 정자 등 노인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이장님이 말해 준 제보자 이외에 새로운 제보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그리고 7월 12일에는 아직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신앙반과 설화반의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전조사 과정에서 애초에 허락을 받았던 급식소 이용문제를 학교 측에서 돌연 학교급식과동 문제와 관련하여 빌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취사 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지만 예년과 다르게 마을 측에서 금년 학술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 조사에는 재직 교수님, 재학생, 그리고 동문이 참가하였다. 재직 교수님으로는 최규일, 윤석산, 김태곤, 안성수, 문성숙, 손오규, 현승환 교수님, 국어교육과 총동문회 회장인 김종식 회장님을 비롯한 30여분의 임원진과 동문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현승환 교수님과 강정식 선생님은 사전 답사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본 조사에서도 숙식을 같이 하며 3박 4일 동안 모든 반을 지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참가 재학생은 아래와 같다. [( )안은 학년]

- 국어교육과 회장 : 김정숙(3)
- 학술부 부장 : 이충훈(3), 차장: 정은진(3), 고은희(2)
- 마을개황 : 신재연, 양유아, 강경민(3), 정민희, 김원구, 정미애(2), 허성보, 양지혜, 김선영(1)
- 방언 : 강동호, 김정욱, 김우희(3), 민경진, 박숙경, 김민아(2), 김동현, 김욱, 정재우, 김소영(1)
- 민요 : 강현이, 강주화, 정은지(3), 김현아, 한아름, 김부름(2), 김승현, 엄윤희, 임성숙(1)
- 설화 : 김경희, 김나래, 이승훈(3), 이은경, 양은숙(2), 송우철, 정금주, 고종성, 조아라(1)
- 신앙 : 양원, 강영찬, 조나리(3), 부석빈, 강희전(2), 양훈일, 부준섭(1)
- 식사준비 : 안형진, 박상원(3), 김수지, 양성호(2)

조사에 도움을 주신 강진규 봉성리 이장님과 강성현 향우회장님, 제주대 교수지원과에 근무하시는 현승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손자나이 짝 되는 어린 학생들의 부탁에도 흔쾌히 친절하게 조사에 응해 주신 봉성리 마을 주민 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하고 지도해 주신 학과 교수님과 여러 동문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3박 4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조사에 동참해

주신 현승환 교수님과 강정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밤늦은 시간까지 조사하며 봉성리 지명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훈 동문께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조사에 임해 준 국어교육과 재학생들과 사전조사부터 자료정리까지 고생한 각 반의 반장 모두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